



2019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두산-키움 양 팀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앞에 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두산 이영하, 오재일, 김태형 감독, 키움 장정석 감독, 이지영, 이정후, 연합뉴스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

두산 “역전승 기운” vs 키움 “상승세 그대로”

201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오늘 잠실서 개막

김태형 감독 “마지막 경기에 극적 우승… KS도 우승” 장정석 감독 “최후의 관문 1%의 힘도 남기지 않겠다”

2019 한국프로야구 챔피언을 가리는 한국시리즈(KS)를 앞둔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환희의 순간을 떠올리며 승리를 기원했다. KS에 직행한 김태형 두산 베이스 감독은 정규시즌 1위를 차지한 10월 1일을,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거쳐 KS 무대에 오른 키움 히어로즈 감독은 단기전을 뚫어나간 순간을 떠올렸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2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9 KBO KS 미디어데이에서 “5년 연속 KS를 치른다. 특히 올해는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10월 1일 잠실 NC 다이노스)에서 승리해 극적으로 1위를 했다”며 “좋은 기운을 이어가서 KS에

서도 우승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석 키움 감독은 “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선수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선수단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1%도 남기지 않고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라고 다짐했다. 두산과 키움은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KS 1차전을 치른다.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 KS 챔피언인 두산은 6번째 KS 우승을 노린다. 김태형 감독은 사령탑에 부임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 시즌 KS에 진출했다. 김 감독은 3번째 KS 우승을 목표로 정했다. 키움은 2014년 이후 5년 만에 KS

무대를 밟았다. 사령탑 3년 차인 장 감독에게 KS는 처음이다. 김 감독은 “우승하면 1인당 10만원 안으로 선물을 하겠다”는 등 여유 있게 농담을 던졌고, 장 감독은 “우승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하겠다”는 등 성실하게 답했다. 그러나 KS까지 올라온 선수들에게는 기쁨이 고마움의 차이가 없었다. 김 감독은 “정말 선수들에게 고맙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극적으로 정규시즌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감격에 찬 얼굴로 “선수들에게 이미 정말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다. 광고롭게도 두 감독 모두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된다. 둘 다 좋은 성적을 거둬 재계약이 유력하지만, KS에서 우승을 차지해야 재계약이 더 확실해진다. 김 감독은 “정규시즌 1위를 한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웃었고, 장 감독도 “KS 진출은 선수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했다.

하지만 KS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열망은 사령탑 못지 않다. 두산 오재일은 “정규시즌을 좋게 마무리했고, 20일 동안 준비도 잘했다”며 “우리가 우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산 영건 이영하도 “KS 마지막 경기도 정규시즌처럼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싶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키움 포수 이지영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KS도 잘 풀릴 것 같다”며 장밋 전망을 했다.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인 이지영은 “감독님 말씀처럼 1%의 힘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형 감독과 장정석 감독은 이날 KS 미디어데에서 1차전 선발 투수를 공개했다. 조쉬 린드블럼(32·두산 베이스)과 에릭요키시(30·키움 히어로즈)가 2019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첫 페이지를 연다. 연합뉴스

‘더 CJ컵’ 우승 토머스 세계 랭킹 4위로 상승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남자 골프 세계 랭킹 4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지난 20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총상금 975만달러)에서 우승한 토머스는 지난주 5위보다 한 계단 오른 4위가 됐다. 더 CJ컵 2라운드를 마친 뒤 무릎 부상으로 기권한 브룩스 켈퍼(미국)

가 1위를 유지했고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더스틴 존슨(미국)이 2, 3위를 지켰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9위에서 10위로 한 계단 밀렸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21)가 44위에서 43위로 한 계단 올라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더 CJ컵에서 공동 6위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안병훈(28)도 48위에서 47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더 CJ컵에서 준우승한 대니 리(뉴질랜드)는 162위에서 97위로 경증 뒤였다. 연합뉴스

장애인 타이라바 낚시대회 26일 낮 12시 김녕항서 개최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 오는 26일 제주시 김녕항에서 ‘전국 장애인 타이라바 낚시대회’를 개최한다.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레포츠 활동에 제약 받는 장애인들에게 낚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대회는 낮 1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선상낚시로 진

행된다. 순위는 이날 잡은 참돔(30cm 이상)의 길이로 가려지게 된다. 우승자에게는 상품권과 순금 상패가 주어지며 1등 시상자가 속한 배선장에게도 특별상이 수여된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경품 추첨권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양용석 포럼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 해양레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쉽게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4) 721-2994.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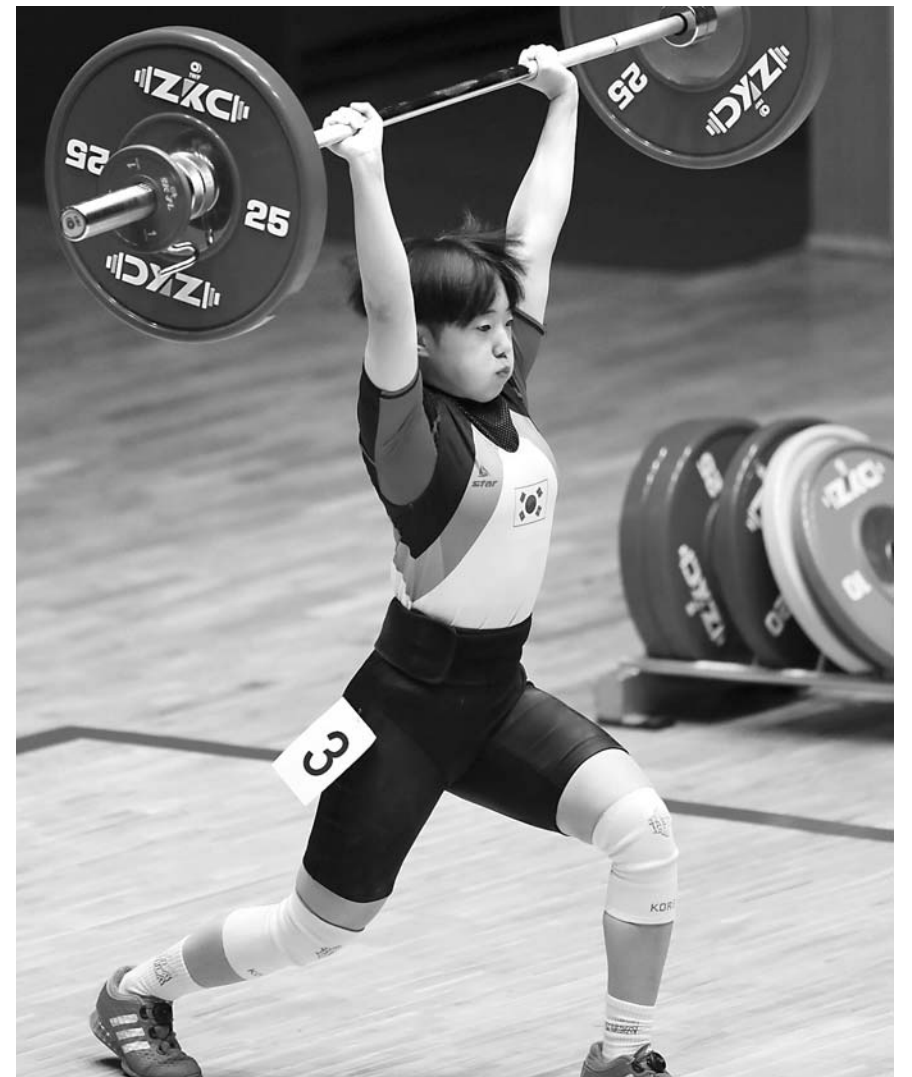
여자축구대표팀 첫 외국인 사령탑 콜린 벨

경력 30년… 여자팀 8년 활동 데뷔는 12월 부산서 중국전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인 콜린 벨(58 사진) 감독이 한국 땅을 밟았다. 벨 감독은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입국장에서 김판곤 부회장 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의 환영을 받은 벨 감독은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했다. 영국 레스터 출생으로, 영국과 독일 국적을 보유한 벨 감독은 28세에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뒤 코블렌츠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지도자 경력만 30년에 달한다. 특히 2011년 SC 07 바드 노이엔하임 감독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약 8년간 여자 팀에서 활동했다. 2013년 독일 여자 분데스리가 FFC 프랑크푸르트 감독으로 취임해 2014년 독일컵우승, 2015년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2015-2016시즌에는 노르웨이 명문 아탈데네스를 맡았고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일랜드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냈다. 선인 직후 ‘선수 폭발성’이 불거진 최인철 전 감독이 물러난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지던 사령탑 공백이 해소되면서 여자 축구대표팀은 본격적으로 2020 도쿄 올림픽 예선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벨 감독 체제의 여자 대표팀은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선보인다. 12월 10일 중국과의 대회 1차전이 벨 감독의 데뷔전이 된다. 연합뉴스



평양에서 ‘오리차차’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21일 오전 평양 청춘가역도경기장에서 유소년 여자 45kg급에 출전한 서가영(15·성한중)이 용상 3차시기 71kg에 도전하고 있다. 이날 서가영은 인상 54kg, 용상 68kg 합계 122kg을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중계방송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10: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조선로코·녹두전(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콩다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55 중계방송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11:00 기분 좋은 날	6:00 모닝와이드 1부 6:20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수상한 정보 9:10 좋은아침 10:00 중계방송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10:30 실컷 나는 오늘 11:00 푸르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방울 유치원 9:30 원더보이즈 10:00 자식의 기쁨 12:00 EBS 정오뉴스 14:55 코파바스 타요 15:10 로보가 폴리 15:55 출동! 슈퍼윙스 16:10 최고다! 호기심 딱지 4 16:40 땀방울 유치원 17:30 페퍼 피크 19:00 스페이더맨 20:00 머털도사
12:00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다투는 13:50 KBS 재능방송센터 14:00 KBS 뉴스 14:10 야생머정(재) 14:40 제29회 KBS 국악대경연 대상선정연주회 16:00 시사간선 17:00 KBS 뉴스5 17:30 중들의 왕국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45 살릴하는 남자들(재) 13:5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채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재) 17:00 다큐공감(재)	12:00 12 MBC 뉴스 12:20 경성판타지 13:20 엘로키즈 동물교실(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롱뽀롱 모두가 놀자 16:20 모두 다 콩다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50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50 JIBS 8 뉴스 12:50 불타는 청춘(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집시 무비월드(재) 17:00 SBS 오 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태형의 아침뉴스 7:30 김태형의 뉴스쇼 9:05 김태형에게 이만별입니다 12:00 CBS나눔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자피점판문점입니다 21:35 라디오강연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보물섬 20:30 여름아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2:00 역사저널 그날 22:55 더 라이브 23:35 슈퍼 23:40 특집 다큐 사회적 경제 내일을 연다	18:00 201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22:00 조선로코·녹두전 23:10 KBS특별기획 드라마 생일편지	18:20 지역MBC 공동기획 농업이 미래다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웃음주식회사 속암수다 21:55 20주년 특집 100분 토론 23:00 PD수첩 23:5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8:00 영재발굴단(재) 19:00 특별기획드라마 환상의 타임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본격연예 한밤 1부 21:30 본격연예 한밤 2부 22:00 VIP-은밀한 시선 22:40 불타는 청춘 1부 23:10 불타는 청춘 2부 23:50 불타는 청춘 3부	7:00 KCTV 뉴스 8:3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꿈을 그리다’ 9:00 KCTV 뉴스 9:30 문화카페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00 KCTV 13시 뉴스 15:10 헬렌지 퀴즈쇼 16:10 UHD 특선 17:40 KCTV 시청자세상 19:00 KCTV 뉴스7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22일
	36년 몸이 나른해지니 건강관리에 투자하라. 48년 이사 변동이 생기거나 축하해 줄 일이 있다. 60년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고 실천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중요하다. 72년 자신감의 용기가 만능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인관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84년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니 내 주장은 적게 하라.
	37년 건강증이 오거나 한 말을 또 하게 된다. 49년 이사 이동운이 있고 직업에 변화도 생긴다. 61년 하고자 하는 일에 기쁜 소식과 귀인을 접하니 신중하라. 73년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거나 상가, 문상 갑 일이 생기게 된다. 85년 옛사람의 충고나 조언엔 마음에 담아 실천하라. 기회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38년 이웃과 기쁨이나 슬픔을 나누게 된다. 50년 자식이나 임무추진에 갑작스런 변화나 충격이 올 수 있다. 62년 친구, 동료 동료에게에 의한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긴다. 74년 기혼자는 임신이 가능하기도 하고 미혼자는 좋은 소식이 온다. 86년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투자를 하거나 준비하는데 금전지출.
	39년 나쁜 소식을 접할 수 있으나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라. 51년 용돈이 생기거나 재물이 늘어난다. 63년 조급함과 경계심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포용력 있는 배려심이 요구된다. 75년 구설 또는 소송건이 생기니 언행주의. 87년 바쁘고 분주하나 마음에 여유가 넘는다. 이성관계 길.
	40년 가족이나 친지들과 외식이나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즐긴다. 52년 신경이 안정되지 못하고 작은 일에 흥분하게 되니 마음에 평화를 갖자. 64년 불법적인 뇌물에는 유혹 당하지 마라. 구설이 따른다. 76년 직장인은 청천이 있고 실업자는 희소식이 있다. 88년 애인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오면 관용이 필요하다.
	41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것이 좋다. 53년 신용은 대인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65년 고만하단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이 있으며 활동력이 늘어난다. 77년 사랑은 행운을 타고 희망을 준다. 결혼운이며 득자의 기쁨이 온다. 89년 취직 또는 직장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성이 생기기도.
	42년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주의, 분실주의. 54년 피부 미용업 사어나 호츠, 문신상 이익이 있다. 66년 관세나 구설수 주의. 안전사고 유의하고 언쟁은 자제하라. 78년 기혼자는 가정에서 불화가, 미혼자는 이성과 다름이 있다. 90년 현실에 만족하라. 과욕이었던 꿈이 될 수 있으며 손실을 가져온다.
	43년 과로 또는 음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건강이나 신장이 약해진다. 55년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도 하려고 한다. 67년 관청의 인허가가 있으며 문서 관련 길한 작용이 있다. 79년 직장인은 인기가 있고 인정 받는다. 금전적으로 지출이 증가. 91년 친구에 관한 기쁜 소식이나 방문이 있다.
	44년 배반 배신이 따르거나 구설수가 따르니 동업은 자중하는게 좋다. 56년 남과 더불어 의는 또는 협조할 일이 발생한다. 68년 과도한 자신감이 때론 갈등을 낳기도 하니 너무 튀는 행동은 거슬린다. 80년 영업에 이익이 있고 교제가 생기기도 한다. 친구가 생기기도 한다. 92년 운전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45년 감인이심이나 답답한 유혹을 경계하라. 독소가 있으며 해함이 있다. 57년 안전사고를 주의하라. 관세구설수가 있다. 69년 자녀의 일이 생기거나 문서 변동이 생긴다. 81년 집중력 있는 시간대나 집중하거나 휴식도 필요한 만큼 하라. 93년 남치는 것은 부추함보다 못하니 여유와 과욕을 버리는 연습을 하자.
	46년 세무감사, 위생검열이 있을 수 있다. 대인관계 언행주의. 58년 부축함을 재워주는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행운이 따른다. 70년 중간역할을 맡으면 인정받고 승진 기회도 찾아온다. 82년 경쟁이나 다툼 내가 손해본다. 남의 일에 관섭하지 마라. 94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문서 이동, 변동은 신중히.
	47년 명예 또는 기쁨이 생기고 이익이 증가하니 몸을 아끼지 마라. 59년 자녀문제로 고민할 일이 생기니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 71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 근심수가 오니 귀가는 늦치마라. 83년 부모님 걱정이 앞서니 편안하도록 전화를 드려라. 95년 서두르지 말고 한번 더 생각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